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205-248
<https://doi.org/10.29212/mh.2022..122.20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61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이민수 |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목 차
1. 머리말
 2. 고구려의 전략과 당의 수륙병용 공격
 3. 철륵·거란의 참전과 일부 당군의 철군
 4. 맺음말

초 록 본 논문은 661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661년 당은 35만 명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요동·압록수·평양 세 방면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대한 고구려의 방어 전략은 1. 요동방어망과 평양성에서 수성전을 전개, 2. 압록수에서 당군의 보급로를 차단, 3. 거란 등의 서북방에 소재한 유목세력들과 연계하여 당을 압박, 4. 당군이 군량 부족과 추위로 인해 지쳤을 때를 기다리다가 공세로 전환, 5. 퇴각하는 당군을 추격 및 섬멸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요동 방면에서는 정명진군이 신성 일대를 공략하였으나, 고구려군은 신성을 사수하여 당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압록수 방면에서는 글필하력군 등이 압록수 이북에 보급기지를 확보

하고자 하였으나, 압록수 이남에 배치된 남생군에게 저지되었다. 그러나 압록수가 결빙되자, 글필하력군은 압록수를 건너 남생군을 격파하였다. 평양 방면에서는 소정방군 등의 수군이 패강으로 진입하여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 포위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소정방군 등은 보급을 맡았던 글필하력군이 남생군에게 저지되고 있는 사이 보급이 끊기면서 고구려군의 저항에 고전하였다. 소정방은 이를 타개하고자, 신라에 보급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초원의 유목세력인 철록이 당의 변경을 공격하고, 고구려에 포섭된 거란이 참전하였다. 결국 요동 방면을 공격하던 아사나총·소사업군과 압록수 방면을 공격하던 글필하력군이 철록·거란 전선으로 철군하게 되었다. 이에 요동 방면의 고구려군은 공세로 전환하여 요동에 잔류한 정명진군을 공격하였다. 평양 방면에서도 고구려군의 반격은 더욱 거세져 당의 진지 2개를 빼앗고 왜에 사신을 보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소정방군은 한파 속에서 고구려군의 반격을 방어하면서 신라의 보급을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제어 : 고구려, 당, 철록, 거란, 신라, 요동, 압록수, 평양

(원고투고일 : 2022. 1. 10,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머리말

최근 660년대 전반기에 전개된 이른 바, 2차 고구려-당 전쟁¹⁾은 645년에 이어 고구려와 당의 두 번째 전면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2차 고구려-당 전쟁을 단독 주제로 한 선행 연구로는 김용만(2004), 김병곤(2013), 장창은(201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그간 삼국통일 전쟁의 과정으로만 언급된 이 전쟁에 대해 전반적인 양상을 다루면서 의의와 중요성을 환기시켰다.²⁾ 그리고 李玟洙(2021)는 묘지 등의 사료를 참고하여 당시 당의 고구려 공격로와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규명을 시도하였다.³⁾ 이외에 2차 고구려-당 전쟁에 대한 단독 주제는 아니지만, 이상훈의 연구도 주목된다. 그는 고구려 마음산의 위치(이상훈, 2017)와 사수의 위치(이상훈, 2021)에 대해 고지도 등을 활용하면서 심도 있는 고찰을 하였다.⁴⁾

-
- 1) 閔德植은 이 전쟁을 2차 麗唐戰爭으로 불렀으며, (閔德植, 「唐柴將軍精舍草堂碑에 대한 檢討」, 『百濟文化』 31(2002): 175-176) 김용만은 고구려와 당의 전면전을 645년은 1차, 661~662년은 2차, 666~668년은 3차로 규정하면서 다른 국지전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용만, 「2次 高句麗-唐 戰爭(661-662)의 進行 過程과 意義」, 『민족문화』 27(2004): 160-161) 이후 鄭媛朱도 이 전쟁을 2차 高唐 전쟁으로 명명하였다. (鄭媛朱, 『高句麗 滅亡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博士學位論文(2013): 251) 최근 이영재, 장창은, 李玟洙도 661~662년 전쟁을 2차 고구려 전쟁으로 규정하였다(이영재, 「660년대 고구려의 대남방 전략」, 『大丘史學』 130(2018): 3;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7(2016): 68; 李玟洙,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38(2021): 130).
 - 2) 김용만, 위의 논문(2004): 159-205; 김병곤, “661~662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책의 전략과 한계”, 『韓國史學報』 50호(2013): 43-75; 장창은, 위의 논문(2016): 68.
 - 3) 李玟洙, 앞의 논문(2021).
 - 4) 이상훈,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음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군사』 104(2017); 이상훈, 「신라군의 사수 전투와 평양성 전투」, 『신라의 통일전쟁』, 민속원, 2021.

이처럼 2차 고구려-당 전쟁 연구는 전쟁의 전반적인 양상과의 의의, 주요 전장 비정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당군은 요동, 압록수, 평양 세 방면으로 공격하였는데, 이러한 당군을 상대하는 고구려의 방어 전략과 각 방면의 개별적인 전투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2차 고구려-당 전쟁에서 철록거란의 참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와 연동된 고구려군의 반격과 신라군의 역할 변동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II장에서는 고구려의 방어 전략과 요동·압록수·평양 방면에서 전개된 전투 양상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고구려의 방어 전략에 대해서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각 전장에 배치된 고구려군의 군사 활동을 통해 추론해보고자 한다. 요동 방면의 전투는 사료 부족으로 인해 복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묘지 사료를 활용하면서 그 양상에 대해 조금이나마 접근해보고자 한다. 압록수 방면의 전투는 글필하력군의 목적과 이에 대응하는 남생군의 임무를 고찰하면서 전투 양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평양 방면의 전투는 압록수 전투와 연계하여 평양성을 포위한 당군이 이른 시기부터 고전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철록거란의 참전이 661년 전황에 미친 파급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철록거란의 참전으로 인해 일부 당군이 철군한 이후 전개된 고구려의 반격과 신라군의 역할 변동에 대해 『삼국사기』, 『일본서기』, 당대 묘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2차 고구려-당 전쟁은 661년부터 662년까지 전개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신라의 본격적인 참전 이전인 661년 12월 전황까지만 다루고자 한다.

2 . 고구려의 전략과 당의 수륙병용 공격

가. 고구려의 방어전략

당은 661년 5월 16일 고구려 공격군 편성을 완성하여 35개 행군(35만 명)으로 요동, 압록수, 평양 세 방면에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하였다.⁵⁾

<표 1> 661~662년 당군의 공격로와 진장

행군명	주요 지휘관	공격로	주요 진장	진거사료
平壤道	蘇定方	평양 방면	장안성(평양성)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遼東道	契苾何力	압록수 방면	압록수 일대	「契苾崗墓誌」, 「婁敬墓誌」,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溟江道	任雅相	평양 방면	장안성(평양성)	「仵欽墓誌」
長岑道	阿史那忠	요동 방면	부여성	「阿史那忠碑」, 「阿史那忠墓誌」
鏤方道	程名振	요동 방면	신성 일대	『新唐書』
沃沮道	龐孝泰	평양 방면	장안성(평양성)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讀史方輿紀要』
扶餘道	蕭嗣業	요동 방면	부여성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含資道	柴哲威	평양 방면	장안성(평양성)	「唐柴將軍精舍草堂碑」
	劉德敏	평양 방면	장안성(평양성)	『三國史記』

5) 평양 방면으로 진군한 평양도행군대총관 소정방, 패강대행군대총관 임이상, 옥저도 행군총관 방효태, 요동 방면으로 진군한 장잠도행군대총관 아사나중, 부여도행군총관 소사업, 누방도행군총관 정명진, 압록수 방면으로 진군한 요동도행군대총관 글필하력은 압록도, 낙랑도, 함자도 등 예하에 복수 행군을 거느렸다(李致洙, 위의 논문(2021): 139-157.).

행군명	주요 지휘관	공격로	주요 전장	전거사료
鴨綠道	張脛	압록수 방면	압록수 일대	『張脛墓誌』
樂浪道	미상	요동 방면	미상	『南郭生墓誌』
미상	薛仁貴	요동 방면	요동성	『集神州三寶感通錄』
이외 25개 행군명 미상				

당의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공격에 대응을 해야 했던 고구려의 태대대로(太대對廬)이자,⁶⁾ 군통수권자인 연개소문⁷⁾의 전략은 기록의 부재로 인해 알 수 없다. 다만, 전장을 통해 추론을 해보자면, 연개소문은 이러한 당군의 공격로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당 수군의 평양성 직공은 612년 평양성 전투는 물론 당의 꾸준한 함선 건조와 660년 당 수군의 백제 사비성 직공 전례를 고려했을 때⁸⁾ 연개소문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연개소문이 대령강과 청천강으로 진입하는 요충지인 위도(葦島)⁹⁾에 수군을 배치한 것¹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 수

6) 『泉男生墓誌』에서 남생이 661년에 막리지에 취임했던 것으로 보아 연개소문은 661년에 태대대로에 취임했을 가능성이 높다(李文基,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한국고대사연구』 50(2008): 63-67.). 구체적으로는 남생이 본격적인 전쟁 직전에 막리지에 취임했으므로(이정빈, 「천남생 묘지」에 보이는 將軍과 7세기 고구려의 군사 운용」, 『韓國古代史探究』 22(2016): 83-85) 연개소문도 전쟁 직전에 태대대로에 취임했을 것이다.

7) 연개소문은 스스로 “兵”을 잘 안다고 자임하였으며(『李衛公問對』 上卷, “靖曰探知蓋蘇文自恃知兵, 謂中國無能討, 故違命, 臣請師三萬, 擒之.”), 645년 당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으며, 왜에서도 당대의 준걸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다(『藤氏家傳』 鎌足傳, “時謂侍臣曰, 傳聞大唐有魏徵, 高麗有侍蓋金, 百齊有善仲, 新羅有庾淳. 各守一方, 名振万里. 此皆當土俊傑, 智略過人. 以此數子, 比朕內臣, 當出跨下, 何得抗衡.”).

8) 李玟洙, 앞의 논문(2021): 158-162.

9) 장창은, 앞의 논문(2016): 86-87.

10)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上 龍朔 2년 3월.

군의 평양성 포위를 저지하기 위해 위도로 유인하여 전장의 범위를 안주성¹¹⁾ 일대로 제한 혹은 평양성 진입을 지연하려는 전술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연개소문은 당 수군의 패강 진입과 평양성 포위도 대비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패강(대동강)과 마음산에서 방어전을 전개하고,¹²⁾ 평양성 수성전이 7개월에 걸친 장기전이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연개소문은 압록수에 당군이 오기 전에 이미 남생에게 수만 명의 정예군을 주어 압록수 이남에 배치하였다.¹³⁾ 남생은 661년에 막리지겸 삼군대장군(莫離支兼三軍大將軍)에 취임하였다.¹⁴⁾ 661년 전쟁은 평양, 요동, 압록수에서 전투가 전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남생은 압록수 방어전의 야전군 사령관을 맡은 것은 것이다.¹⁵⁾ 남생의 군대 구성은 연개소문이 과견했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군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¹⁶⁾ 연개소문은 648년에 대행성(大行城)·박작성(泊灼城)이 위기에 처했던 전례를¹⁷⁾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생

11) 안주성은 안주읍 동쪽 가두산을 배경으로 청천강을 자연 해자로 하여 안주읍내를 둘러막은 평산성으로 고구려 때부터 청천강 일대를 수비하는 서북지역 중심성의 하나였다. (이상훈, 「고구려 영류산의 위치와 나당연합군의 진군로」, 『한국고대사탐구』 34(2020): 192)

12) 『册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13) 『舊唐書』 卷109, 列傳59, 契苾何力; 『新唐書』 卷110, 列傳35 諸夷蕃將 契苾何力; 『資治通鑑』 卷200, 唐紀16 高宗 龍朔 元年 9월.

14) 「泉男生墓誌」, “卅八任莫離支兼授三軍大將軍, 卅二加太莫離支, 摠錄軍國, 阿衡元首.”

15) 이정빈, 「천남생 묘지」에 보이는 將軍과 7세기 고구려의 군사 운용, 『韓國古代史探究』 22(2016): 87-88. 연개소문은 수도인 평양성 방어를 맡았을 것이다.

16) 이문기, 「7세기 高句麗의 軍事編制와 運用」, 『고구려발해연구』 27(2007): 171-172.

17) 『舊唐書』 卷69, 列傳19 薛萬徹; 『新唐書』 卷94, 列傳19, 薛萬徹; 『册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648년 설만철군이 압록수 이북을 공격할 당시 박작성의 구원군은 오골성, 안지성(안시성)에서 차출한 요동의 군대였다. 이는 당시 압록수 이남에 배치된 고구려군이 상당히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대행성과 박작성은 요동의 구원군이 올 때까지 자력으로 당군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설만철군은 비록 박작성 함락에 실패하고, 퇴각하였지만, 만일 훗날 당군이

을 압록수 이남에 배치하여 당군의 압록수 이북 보급기지 확보를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요동 방면은 당이 659년까지 간헐적으로 공격했던 만큼 방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동방어망의 주요 성들은 수성전을 전개하면서 당군이 추위와 군량부족으로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요격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다.¹⁸⁾

신라를 위시한 남부전선은 645년 당시 신라가 당을 도와 고구려의 수구성을 공함¹⁹⁾했던 적이 있던 만큼 신라의 공격은 충분히 예상 범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당의 고구려 공격군 출병이 고종의 친정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안²⁰⁾ 661년 5월경 신라의 예봉을 꺾기 위해 술천성(述川城)과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공격하였지만,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였다.²¹⁾ 고구려군의 퇴각 원

박작성을 확보한다면 압록수 이남의 의주가 위협에 노출되어 당군의 의주대로를 경유한 평양성 진격을 허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연개소문은 압록수 이남에 대군을 배치하여 압록수를 해자로 삼아 압록수 이남에서부터 즉각적으로 당 수군의 압록수 이북 상륙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8)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賊中有對盧, 年老習事, 謂延壽曰 吾聞中國大亂, 英雄並起. 秦王神武, 所向無敵, 遂平天下, 南面爲帝, 北夷請服, 西戎獻款. 今者傾國而至, 猛將銳卒, 悉萃於此, 其鋒不可當也. 今爲計者, 莫若頓兵不戰, 曠日持久, 分遣驍雄, 斷其饋運, 不過旬日, 軍糧必盡, 求戰不得, 欲歸無路, 此不戰而取勝也.” 이러한 전략은 645년 뿐만 아니라 좌원전투, 고구려-수 전쟁 등에서도 운용했던 만큼 고구려에게 익숙한 전략이었다.

19)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新羅.

20) 당은 661년 4월 16일에 고구려 공격군 조서를 발표하였으나, 고종의 친정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인해 결국 4월 29일에 고종이 친정을 포기하고, 5월 16일에 친정군을 제외한 고구려 공격군 조서를 발표하였다(李致洙, 앞의 논문(2021): 138-139). 고구려는 이러한 당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다가 5월 초에 신라를 우선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21)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8년 5월 ; 『三國遺事』卷1 紀異1 太宗春秋公. 고구려는 북한산성을 함락할 경우 신라의 대당교섭을 차단하고,(이영재, 앞의 논문(2018): 24-25) 한강 이북 지역에서 신라의 군사적 움직임에 큰 제약을 주고 한강 이남의 신라군과의 군사적인 연계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전력을 투입하였다.(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2021): 67-75) 이러한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죽령 이북의 고토 회

인은 신라군의 선전²²⁾과 한창 북한산성을 공격 중이던 5월 16일에 당이 최종 고구려 공격군 조서를 발표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³⁾ 결국 고구려는 신라 선전에서 퇴각하고, 대신에 백제 부흥군과 이를 지원하는 왜가 신라를 견제해주길 기대하며 대외교섭을 추진하였다.²⁴⁾ 연개소문은 서북방에 소재한 유목세력에게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A-1. 顯慶 5년 조서를 내려 (아사나충을) 使持節 長岑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았다. 辰韓이 소란스럽게 하자, 旆를 따라 잔당을 없애고, 契丹이 縱毒하자, 戈를 돌려 亂으로부터 구원하였다. 玄兔의 遊魂을 끊고, 黃龍의 큰 재앙을 전복시켜, 모두 없애 그침에 이르렀다.²⁵⁾

A-2. 얼마 후 遼碣에서 군사를 일으킴으로써, 公을 使持節 長岑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았다. 元戎(兵車)이 먼 곳까지 달려가자, 하늘의 위엄이 멀리 뻗쳐서, 三山이 이로 인해 흔들리니, 九種은 이로써 두려워 놀랐다. 契丹은 白狼의 동쪽에 있으면서, 黃龍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가까이는 卉服을 침략하고, 밖으로는 鳥夷와 결탁하였다. 公은 군사를 돌려 誅翦하고, 應機하여 殄滅시켜 노획한 것이 萬計였다.²⁶⁾

복 인식에 대한 반영인 측면도 있었다(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 지배세력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 『民族文化』 37(2011): 155-168.).

- 22) 신라의 북한산성 전투 승전 요인은 소수의 투석기 부대 파견(이상훈, 「661년 북한산성 전투와 김유신의 대응」, 『국학연구』 31(2014))과 지방관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가 효율적인 수성전을 전개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고창민, 앞의 논문(2021)).
- 23) 당군의 고구려 공격 계획이 고구려군의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이상훈, 위의 논문(2014): 337 각주 74).
- 24) 당시 고구려의 대외교섭 정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지원 요청했을 것이라는 견해(徐榮教, 「倭의 百濟 援助와 蘇定方の 平壤城 撤軍」, 『大丘史學』 117(2014))와 신라를 간접 견제해주는 정도만 바랐다는 견해(이영재, 앞의 논문(2018))로 나뉜다.
- 25) 「阿史那忠碑」, “顯慶五年, 詔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總管. 辰韓倣擾, 從旆除殘. 契丹縱毒, 迴戈拯亂. 剿玄兔之遊魂, 覆黃龍之巨孽, 亦既至止.”
- 26) 「阿史那忠墓誌」, “屬興師遼碣, 以公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總管. 元戎長驅, 天威遐暢, 三山因之而波蕩, 九種以之而震驚. 契丹在白狼之東, 居黃龍之右, 近侵卉服, 外結鳥夷. 公, 迴師誅翦, 應機殄滅, 虜獲萬計.”

A-1, 2에 의하면 660년대 초반 고구려와 거란(契丹)의 연계가 확인되기 때문에²⁷⁾ 연계소문이 당에게 제압되었던 거란을 포섭하려는 외교 전략도 병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²⁸⁾ 거란과의 연계는 고구려가 거란의 서쪽에 소재한 철록제부(鐵勒諸部)와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²⁹⁾ 요컨대 고구려의 전략은 1. 요동방어망과 평양성에서 수성전을 전개, 2. 압록수에서 당군의 보급로를 차단, 3. 거란 등의 서북방에 소재한 유목세력들과 연계하여 당을 압박, 4. 당군이 군량 부족과 추위로 인해 지쳤을 때를 기다리다가 공세로 전환, 5. 퇴각하는 당군을 추격하여 섬멸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7) 『阿史那忠墓誌』에 기재된 ‘鳥夷’는 고구려를 의미한다(윤용구,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 裴矩의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5(2005): 58; 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2012): 232). 『斛斯正則墓誌』에 기술된 태종의 고구려 공격 기사에서도 고구려를 鳥夷로 표기하였다(『斛斯正則墓誌』, “(貞觀)十八年, 從幸洛陽宮. 仍屬鳥夷恃險, 狼顧不賓. 卽從龍鷹, 恭聞豹略.”), 고구려의 거란 포섭 성사는 철록의 당 공격 시점인 661년 10월 전후로 여겨진다.

28) 徐榮教, 『唐高宗 百濟撤軍 勅書의 背景』, 『東國史學』57(2014): 330-332.

29) 645년에 연계소문은 말갈을 매개로 설연타와 연대를 시도한 바 있다(『資治通鑑』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9年 8월.). 이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서영교(徐榮教, 『고구려의 대당전쟁(大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安山城 전투와 薛延陀』, 『軍史』49(2003): 220-221; 서영교, 『연개소문의 對설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 - 『資治通鑑』 권198, 貞觀 19年 8·12월조 『考異』의 『實錄』 자료와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 44(2014)), 김용만(김용만, 『고구려 후기 고구려, 수·당 북방제국의 대립관계』, 『高句麗研究』 29(2007): 274-275;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104-107), 김지영(김지영, 『7세기 고구려와 북방제민족의 관계 변화』, 『만주연구』8(2008): 79-80; 김지영, 『7세기 중반 거란의 동향 변화와 고구려-660년 거란의 이반을 기점으로』, 『만주연구』 12(2011): 88-89), 이성제(李成制, 『高句麗와 투르크계 北方勢力의 관계-이해의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 『高句麗渤海研究』 52(2015): 159-162; 이성제,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 - 고구려 사절이 아프리카시암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5(2019): 247-249)의 연구가 참고 된다.

나. 당의 수륙병용 공격

1) 요동 방면

661년 5월 16일 직후에 출병한 당의 육군이 요동 방면에 이르렀을 시점은 대략 9월 중순경으로 여겨진다.³⁰⁾

B-1. 唐 龍朔(661~663) 중에 遼左에 전쟁이 있어 軍將 薛仁貴를 가게 하였다. (설인귀는) 隋主가 토벌했던 遼東의 옛 땅에 이르러 산의 불상을 보았는데 텅 비어서 쓸쓸하고 사람의 왕래가 끊겨 있었다. 옛 노인에게 물으니, ‘이것은 선대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였고 곧 그림으로 베껴 경사로 돌아왔다.³¹⁾

B-2. 공은 겨우 15세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가 邦官을 받았다. 중리소형의 관등을 받아 貴端道史의 직을 맡았다. 大唐 龍朔 원년(661)에 이르러, 고종 황제가 칙을 내려 의로운 군대를 발하여 遼左의 죄를 문책하시니, 공은 군대를 이끌고 (황제의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사로잡혔다. 황제는 저항한 허물을 묻지 않고 歸降의 예를 허락하였다.³²⁾

B-3. 龍朔 원년(661), 遼東의 죄를 묻는데, 鏤方道總管 程名振이 (황제에게) 공을 行軍兵曹를 담당하게 할 것을 아뢰었다. (楊師善은) 軍謀와 戰策으로 많은 곳에서 승리하였다.³³⁾

30) 644년 11월 24일 낙양으로부터 출병한 요동도행군은(『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8년 11월 甲午.) 645년 4월 5일에 신성을 공격하였고(『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9년 4월 壬寅.), 645년 2월 12일 낙양으로부터 출병한(『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9년 2월 庚戌.) 태종의 6군은 5월 10일에 요수를 건넜다(『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9년 5월 丁丑.). 이로 보아 낙양으로부터 요수까지 행군하는 데 있어 대략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31) 『集神州三寶感通錄』 中, “五十唐龍朔中. 有事遼左行軍將薛仁貴. 行至隋主討遼古地. 乃見山像空曠蕭條絕於行往. 討問古老云. 是先代所現. 便圖寫傳本京師云云.”

32) 「高乙德墓誌」, “公華纔立志, 仕被邦官, 中裏小兄, 任貴端道史. 暨乎大唐龍朔元華, 皇大帝 勅發義軍, 問罪遼左, 公率兵敵戰, 遂被生擒.”

33) 「楊師善墓誌」, “龍朔元年, 問罪遼東, 鏤方道總管程名振奏公充行軍兵曹. 軍謀戰策, 多所決勝.”

우선 B-1에 의하면 설인귀군은 요동성으로 진군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얼마 안 있어 귀국한 것으로 여겨진다. 661년 10월 경 고종, 정인태와 함께 낙양에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³⁴⁾ 그리고 B-2에 의하면 귀단도사(貴端道史) 고을덕은 661년 전투에서 생포되었다고 한다. 귀단성은 현재 신성(新城: 현 撫順市 高爾山城)의 이칭으로 파악한 견해³⁵⁾를 기반으로 신성이 육살(褥薩)급 대성이었을 것이라는 견해³⁶⁾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³⁷⁾ 주지하듯이 고구려 서변의 중진(重鎭)인 신성은 요동성에 이어 안동도호부의 치소가 되었을 정도로 그 위상이 남달랐다. 따라서 귀단성=신성설을 기반으로 신성이 처려근지(處閔近支)급 성이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에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연개소문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고을덕³⁸⁾이 고구려 서변 방어의 핵심인 신성의 성주라는 것도 다소 부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귀단성=신성설의 논거인 650년대의 전투를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657년 전투를 살펴보자. 『구당서(舊唐書)』 설인귀전에 의하면 당군은 고구려군을 귀단성에서 격파하였다고 한다.³⁹⁾ 그리고 『책부원구(冊府元龜)』에 의하면 당군은 고구

34) 『新唐書』 卷111, 列傳36, 薛仁貴, 李玟洙, 앞의 논문(2021): 109. 당시 설인귀군 자체가 철군한 것으로 여길만한 원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주요 지휘관만 교체된 것으로 여겨진다.

35) 池内宏,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史研究』 上世第二冊, 吉川弘文館(1960): 308-309 ; 田中俊明·東潮,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1994, 340.

36)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28-257 ;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367.

37) 李成制,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분석-」, 『중국고중세사연구』 38(2015): 202 ; 이성제, 「褥薩의 大城: 王都 5部 駐在와 그 職任」, 『한국고대사연구』 92(2018): 170-172.

38) 李成制, 위의 논문(2015): 202-203.

39) 『舊唐書』 卷83 列傳33 薛仁貴, “顯慶二年, 詔仁貴副程名振於遼東經略, 破高麗於貴端城, 斬首三千級.”

려군을 귀단수에서 격파 후 신성을 불태우자, 살획한 무리가 많았다고 한다.⁴⁰⁾ 두 기사를 비교해보면 일견 귀단성=신성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설인귀전에는 귀단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한 내용만 전하는 반면에 『책부원구』는 당군이 귀단수(설인귀전의 귀단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한 후 신성을 불태운 추가적인 군사 활동도 전하고 있다. 두 사료가 일치하는 부분은 귀단수(=귀단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한 내용뿐이다. 즉, 귀단성이 귀단수 인근에 소재한 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신성의 이칭으로 단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책부원구』에서 귀단수와 신성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설인귀전의 귀단성은 신성과 서로 다른 곳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655년 신성 전투를 살펴보자. 『구당서』 고려전에 의하면 당군은 신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신성의 외곽(外郭)과 허락(墟落)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⁴¹⁾ 『책부원구』에 의하면 고구려군이 당군의 규모가 작은 까닭에 6개 성의 문을 열고 출병하였으나, 귀단수에서 패배하고 당군은 나곽(羅郭)과 촌락(村落)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⁴²⁾ 이를 조합해보면 신성의 고구려군이 신성 권역의 귀단수 주변 6성과 연계하여 당군과 전투를 벌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설인귀전의 귀단성은 신성 권역의 6개 성 중 한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⁴³⁾ 655년과 657년 전투 모두 공통적으로 귀단수(귀단성)에

40) 『册府元龜』 卷358 將帥部19 立功11, “程名振, 爲營州都督兼東夷都護。顯慶二年, 率兵破高麗於貴端水, 焚其新城, 殺獲甚衆。”

41)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永徽)六年, … 有詔營州都督程名振·左衛中郎將蘇定方率師討之, 至新城, 敗高麗兵, 火外郭及墟落, 引還。”

42) 『册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 “(永徽)六年, … 五月, 程名振率兵, 渡遼水至高麗。以名振兵少, 乃開六城門出兵, 渡貴端水與名振合戰。賊徒大敗, 奔走過水, 欲入城不得, 殺獲千餘人, 名振縱兵, 焚其羅郭及村落而還。”

43) 주지하듯이 신성은 주성인 東城을 주축으로 西城, 南衛城, 北衛城 그리고 동남쪽의 環形 小城 3개로 총 7개의 성으로 구성된 복곽식 산성이다. 『册府元龜』에 기재된 신성 권역 6개의 성은 신성의 이러한 특이한 구조를 반영한 기록으로 귀단

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한 후 신성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아 귀단성은 당군의 수월한 신성 공략을 위해 선결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⁴⁴⁾ 661년 당군이 귀단성 도사인 고을덕을 생포하게 된 정황도 신성 공략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⁴⁵⁾

신성 일대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추측되는 정명진군⁴⁶⁾은 귀단성 도사 고을덕을 생포한⁴⁷⁾ 사안과 B-3에서 정명진군의 병조(兵曹) 양사선이 뛰어난 계책으로 많은 곳에서 승리하였다고 한 것⁴⁸⁾

성은 신성을 구성하는 위성 중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성 羅郭에 불을 질렀다는 기사는 남위성 수문에서 불에 탄 배나무 말뚝이 출토된 것과 일견 부합한다(徐家國·孫力,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7-2(1987): 45.). 그러나 귀단성은 도사가 주재하는 처려근지급의 성이다. 이 위성들은 처려근지급의 성으로 보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의문이 있다. 귀단성의 구체적인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 44) 참고로 「張素墓誌」에 의하면 龍朔年中에 玄菟를 깨뜨렸다고 한다(「張素墓誌」, “去龍朔年中, 屬三韓作梗, 憑凌鯤海之隅, 九種孤恩, 旅拒狼河之外, 君乃負霜戈而報國, 直下朝鮮, 帶月羽以從軍, 先摧玄菟.”). 여기서 말하는 玄菟가 고구려를 관념상이 아닌 실제 현도성 공격을 의미한다면(李玟洙, 앞의 논문(2021): 154-155 각주 116.), 그것은 신성 공략을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정원주, 「男生の失脚 배경과 그의 行步」, 『한국고대사연구』 75(2014), 324-325.).
- 45) 이에 대해 고을덕이 도사로 있던 귀단성의 병력을 빼내 압록수 전투에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李成制, 앞의 논문(2015): 202), 당은 645년 신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서돌궐 흥망 전후(647-655-657년)로 신성 일대를 공격하였다. 당은 신성 공략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을 공격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정황에 고을덕이 선불리 압록수 이남의 남생 예회에서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李玟洙, 앞의 논문(2021): 154-155).
- 46) 정명진은 영주도독겸 동이도호로서 655-657년 신성 일대, 658년 적봉진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경험이 있다. 그는 661년 당시 요동의 지세를 가장 잘 아는 요동 공격에 가장 적합한 주요 인사였다고 할 수 있다(李玟洙, 위의 논문(2021): 156-157.).
- 47) 귀단성이 함락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을덕은 외곽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정명진군과 전투를 벌였다가 생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648년 박작성 외곽 전투에서도 박작성주 소부손이 당군에게 참수 당하였으나, 박작성은 당군으로부터 끝까지 성을 사수한 바 있다(『冊府元龜』 卷985 外臣部 30 征討4.).
- 48) 「楊師善墓誌」, “龍朔元年, 問罪遼東, 鑿方道總管程名振奏公充行軍兵曹. 軍謀戰策, 多所決勝.” 물론 묘지 특성상 다소의 과장된 기술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양사선이 신성 일대에서 어느 정도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보아 초전에 승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명진군이 귀단성, 신성을 함락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성 권역의 고구려군은 초전에 고전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신성을 사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2) 압록수 방면

661년 5월 16일 직후에 내주로부터 출병한 글필하력군은 9월 말에 압록수 북쪽에 상륙하였다.⁴⁹⁾ 글필하력군은 압록수에서 고구려군과 큰 전투를 벌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C-1. 龍朔 元年(661) 조서를 내려 (글필하력을) 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9월에 수륙양군을 平壤에서 모이게 하였다. 군사들이 鴨綠(水)에 이르자, 파도가 광대하고 거칠어 배로 건널 수 없었다. 王期를 잃을까 두려워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충성스러운 뜻을 갖추어 아뢰자, 찬바람이 네 번 불고 얼음물들이 합쳐졌다. (요동도행군의 무리들이 겨우 건너자 얼음이 뒤따라 녹으니, 高麗가 신기하게 여겼다.⁵⁰⁾

C-2. 龍朔 원년(661), 다시 遼東道行軍大總管이 되어 9월, 鴨綠水에 이르렀는데, 그 곳은 곧 高麗의 險阻로, 莫離支 男生이 精兵 수만 명으로써 그곳

49) 글필하력군은 육로가 아닌 해로로 압록수 방면으로 진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645년 이후 보강축조 된 요동방어망을 아무런 피해 없이 육로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9~190). 2. 글필하력군의 진군과 회군 당시 요동을 통과하였다는 기록의 부재(우석훈, 「遼河 유역의 高句麗 千里長城」, 『軍史』 92(2014): 114). 3. 압록도행군부총관에 제수된 설만비가 출정을 위해 당 수군의 출항지인 내주로 향함. 4. 「契苾嵩墓誌」에 의하면 글필하력군은 배를 운용, 이상의 4가지 이유로 볼 때 글필하력군은 해로를 경유하는 수군으로 편성되었을 것이다(李玟洙, 앞의 논문(2021): 145-151). 글필하력군의 도착시점은 648년에 설만철군이 1월 말에 출병하여(『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 貞觀 22년 정월.) 6월경 압록수에 상륙한 것(『册府元龜』 卷985 外臣部 30 征討4.)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

50) 「契苾嵩墓誌」, “龍朔元年, 詔爲遼東道行軍大總管, 于時九月, 水陸兩軍, 大會平壤. 兵至鴨綠, 波濤浩瀾, 無舟可濟. 恐失王期, 仰天而囂, 具申忠志. 寒風四起, 流澌立合. 軍衆纔渡, 冰隨後銷, 高麗謂神.”

을 지키고 있어서 무리가 (압록수를) 건널 수 없었다. (글필)何力이 비로소 (압록수에) 이르자, (압록수가) 때마침 겹겹으로 얼어 크게 합쳐지자, 군사들이 빠르게 곧장 (압록수를) 건너 북을 치며 나아가니, 賊이 드디어 크게 무너졌다. 수십 리를 추격하여 3만 급을 참수하였고, 나머지 무리는 모두 항복하였다. 男生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때마침 군대를 돌아오라는 조서가 있어 이에 돌아왔다.⁵¹⁾

당시 압록수 이북에는 글필하력의 본진을 제외한 여러 행군이 상륙해있었고,⁵²⁾ 그 이남에는 수만 명의 남생군이 배치돼 있었다. 현재 남생군이 배치된 곳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누경묘지(婁敬墓誌)」에 의하면 남생군을 격파한 글필하력군은 철산진(鐵山陣)에 이르렀다고 한다.⁵³⁾ 철산진은 현재 지명의 유사성과 거리로 보았을 때 평안북도 철산군으로 여겨진다.⁵⁴⁾ 압록수 이북에서 철산에 이르려면 박작성-의주-용천을 거쳐야 한다.⁵⁵⁾ 이를 역순으로 추적해보았을 때

51) 『舊唐書』卷109, 列傳59, 契苾何力.

52) 李致洙, 앞의 논문(2021): 148 각주 94, 95.

53) 「婁敬墓誌」, “至龍朔元年, 從總管契苾將軍遼東道行除檢校果毅, 至平壤城鐵山陣.”

54) 義州에서 鐵山까지 56리~79리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卷53, 平安道 義州牧·鐵山郡.). 이는 남생군을 격파한 글필하력군이 수십리를 추격했다는 것과 일견 부합한다. 「婁敬墓誌」에서 “至平壤城鐵山陣.” 라고 하여 언뜻 글필하력군이 남생군을 추격한 곳인 철산진이 평양성 인근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압록수에서 옥이성(안주)까지의 거리가 200리로(『資治通鑑』卷201 唐紀17 高宗 總章 元年 9월, “勣既克大行城, 諸軍出他道者皆與勣會, 進至鴨綠柵, 高麗發兵拒戰, 勣等奮擊, 大破之, 追奔二百餘里, 拔辱夷城, 諸城遁逃及降者相繼.”), 옥이성 이남에 소재한 평양성은 압록수와 200리 이상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다수 기록에서 언급한 글필하력군이 남생군을 추격한 거리인 수십 리와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舊唐書』李勣傳에서는 이적군이 압록수에서 200리를 추격한 것을 두고 평양성에 이르렀다고 한 바 있다(『舊唐書』卷67 列傳17 李勣, “總章元年, 命勣爲遼東道行軍總管, 率兵二萬略地至鴨綠水. 賊遣其弟來拒戰, 勣縱兵擊敗之, 追奔二百里, 至於平壤城.”). 이는 마치 이적군이 평양성까지 진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資治通鑑』에 의하면 압록수 이남 2백리는 옥이성으로 평양성이 아니다. 「婁敬墓誌」에서 철산진이 평양성 인근에 소재한 것처럼 기술한 것은 『舊唐書』李勣傳과 유사한 과장된 형태의 기술로 이해된다.

남생군은 의주나 신의주 인근에 주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기록상 남생군이 성에 의지해서 방어전을 전개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⁵⁶⁾ C-2에서 남생의 주둔지를 ‘험저(險阻)’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남생군은 자연지형에 의지해서 글필하력군의 도하를 저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글필하력군의 압록수 이북 상륙 목적은 648년 설만철군의 압록수 이북 공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종은 설만철군의 압록수 이북 공격 직후 해로로 군량을 운반하고자, 대규모 선박을 건조하여 내수에 가게 하고, 보급물자를 오호도(烏胡島)에 축적하게 하였다. 이는 압록수 이북에 보급기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648년 압록수 이북 공격은 649년에 재개될 고구려 공격의 예행연습이었던 것이다.⁵⁷⁾

글필하력군의 본래 목적도 설만철군처럼 압록수 이북에 소재한 대행성과 박작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661년 압록수 이북에 상륙한 글필하력군은 설만철군과 유사한 군사 활동 흔적은 보이지 않고, 압록수를 사이에 두고 남생군과 대치하였다. 이는 글필하력군이 압록수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던 중 압록수 이북의 대행성, 박작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남생군은 글필하력군의 진군을 중도에서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글필하력군이 요동과 평양의 연계를 차단하고, 보급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록수를 건너 배후를 위협하는 남생군을 격파해야 했다. 남생군이 압록수 이남에 있는 한 글필하력군이 평양성을 포위

55) 양시은,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제」, 『고고학』 12-3(2013): 134.

56) 현재 이들 지역에 소재한 고구려 성 유적으로는 서린동고성(신의주시), 임천성(의주군 춘산리), 대신동고성(의주군)등이 있다(徐日範·尹根一, 「北韓 內의 高句麗 城 分布와 研究現況」, 『高句麗研究』 8(1999): 115.).

57) 李玟洙, 앞의 논문(2021): 150-151. 특히 압록강 하구에 소재한 대행성은 수로가 닿는 다른 고구려 戰線의 唐軍에게 재보급을 해줄 수 있는 중간물류기지의 역할도 할 수 있었다(徐榮教, 「唐의 高句麗 內戰介入과 新城·大行城 점령」, 『中國史研究』 131(2021): 67-69.).

한 당군에게 보급을 조달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글필하력군은 임시로 모처에 상륙 후 남생군부터 제압하고자 하였으나, 남생군은 요해지에서 글필하력군의 도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⁵⁸⁾

C-1에 의하면 글필하력군은 압록수의 거친 파도로 인해 배로 건널 수 없었다고 한다.⁵⁹⁾ 당시 당의 전함은 길이 100척, 너비 50척의 대형 선박이었다.⁶⁰⁾ 압록강 하구는 여러 섬으로 인해 강폭이 줄어들어 다수의 대형 전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으며,⁶¹⁾ 조수간만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⁶²⁾ 압록수 도하 횡수도 1일 2회로 제약이 있었다.⁶³⁾ 즉, 남생군은 압록수의 기상현상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방어전을 전개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글필하력의 본진이 압록수 이북에 상륙한 시점에 압록수가 결빙되었다. C-1에 의하면 남생군은 압록수가 결빙되고 글필하력군이 도하하자, 놀랐다고 한다.⁶⁴⁾ 9월 말경의 압록수 결빙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기상현상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봉천통지(奉天通志)』에 의하면 압록강은 매년 겨울 12월에서 다음 해 3, 4월까지 결빙되므로 선박이 통행할 수 없다고 한다.⁶⁵⁾ 압록수는 일반적으로 12월경 결빙이 되

58) 압록강은 도강을 감행하더라도 강을 건너는 가운데 대오가 흐트러질 우려와 이로 인한 공격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허인욱, 「유목사회의 특성과 고려-거란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60(2020): 56).

59) 1933년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압록강의 파도는 정박 중이던 범선 12척을 침몰시켰을 정도였다(「狂風暴雨襲來 工場이 倒壞되어 三名即死, 三名重傷 鴨綠江 일어 十二隻沈沒 停電으로 市街暗黑化」 『東亞日報』 1933년 11월 7일).

60)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 貞觀 22년 6월.

61) 신범규, 「8세기 전반 발해의 해양 교통로와 제해권 범위」, 『한국고대사탐구』 38(2021): 180-181.

62) 安周燮, 『高麗-契丹 戰爭史 研究』, 明知大學校博士學位論文(2001): 146~147쪽.

63) 許仁旭, 『高麗-契丹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 연구』, 高麗大學校博士學位論文(2012): 71쪽.

64) 『新唐書』 契苾何力에도 글필하력군의 결빙된 압록수 도하에 고구려군이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新唐書』 卷110, 列傳35 諸夷蕃將 契苾何力).

65) 『奉天通志』 卷163, 交通3 航路下, “每年冬季十二月至翌年三月凡四月爲凍水時期船

기 때문에 이보다 이른 압록수 결빙은 남생군에게 있어 예상하기 어려운 악재였을 것이다.⁶⁶⁾

반면에 글필하력군에게 있어 압록수 결빙은 압록수를 도하하여 남생군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⁶⁷⁾ 글필하력군은 압록수를 건너 수만 명의 남생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철산진까지 추격하여 3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를 생포하였다.

글필하력군이 남생군을 수십리까지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인 요동평양 등의 고구려군이 당군과 전투 중이므로 군대의 이동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글필하력군은 압록수 전투의 승전으로 인해 큰 제약 없이 해상보급 활동 외에도 철산-선천-정주-안주를 경유한 평양 방면⁶⁸⁾까지의 폭이 넓은 군사 작전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반면에 글필하력군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 고구려는 당군의 보급을 저지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船不能通行.”

66) 물론 압록강은 이르면 음력 8월에도 결빙되기도 하지만(신범규, 앞의 논문(2021): 190쪽 각주 43 참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67) 압록강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수량이 적은 갈수기나 얼음이 어는 결빙기를 택해야 했다(허인욱, 앞의 논문(2020): 55.).

68) 양시은, 앞의 논문(2013): 134.

<그림 1> 압록수 전투 전황 추정도



* 출처 : Google 지도 활용

3) 평양 방면

661년 5월 16일 직후에 내주로부터 출병한 소정방군(평양도행군), 임아상군(패강도행군), 방효태군(옥저도행군) 등은 8월 9일에 패강 수로에 진입하였다.⁶⁹⁾ 다수의 사료에서는 소정방군의 군사활동만 기록되어 있지만,⁷⁰⁾ 임아상군과 방효태군도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다.

D-1. 龍朔 2年 3月 癸丑, 幸同州. 蘇定方이 高麗를 葦島에서 격파하고, 다시 나아가 平壤城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⁷¹⁾

D-2. 龍朔元年(661) 8月, 蘇定方이 高麗의 무리를 溟江에서 격파하고, 잇단 전투에서 모두 이겨, 그 馬邑山을 빼앗아, 산에 의지해 쌓을 설치했다, 드디어 平壤城을 포위하였다.⁷²⁾

D-3. 龍朔 원년 溟江道(行軍)가 하늘의 도리를 받들고 위엄으로 죄를 묻자, 큰 배에 무기를 감추고 星樓에서 홀로 (적을) 굽어보고 분주히 달렸다. 배를 타고(浮龍) 수로를 따라 공격하니(水劍), 月峽에서 앞서기를 다투며 명성을 날렸다.⁷³⁾

69) 『新唐書』 卷3 本紀3 高宗 龍朔 원년 8월, “甲戌, 蘇定方及高麗戰于溟江, 敗之.” 『資治通鑑』의 7월(『資治通鑑』 卷200 唐紀16 高宗 龍朔元年 7월 甲戌.)은 8월의 오기로 여겨진다. 후술할 『三國史記』에 의하면 9월 27일 이후 소정방은 신라에게 배를 해안가에 던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소정방이 8월 즈음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정방의 도착한 달은 8월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70)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上 龍朔 2년 3월 ; 『新唐書』 卷111 列傳36 蘇定方 ;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71)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上 龍朔 2년 3월.

72)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73) 「作欽墓誌」, “龍朔元年, 溟江道敬奉天規, 承威問罪, 君沉戈畫鶴, 瞻獨驚於星樓, 水劍浮龍競先 鳴於月峽.”

D4. 龐孝泰는 左驍衛將軍이 되어 高宗이 高麗를 정벌할 때 보내고자, 孝泰를 沃沮道總管으로 삼았다. 이때 孝泰는 令南의 수군(水戰之士)을 거느리고, 蛇水가에서 군영을 세웠다.⁷⁴⁾

D5. 蛇水는 平壤의 서쪽 경계에 있다. 唐 龍朔 초에 龐孝恭 등이 高麗를 공격할 때 嶺南의 군사로써 蛇水에 壁을 쌓았다.⁷⁵⁾

D-3을 보면 임아상군이 수로를 따라 고구려 수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⁶⁾ D-4에서도 방효태가 수군을 거느리고 평양성 인근의 사수에 진영을 구축하였다고 한다.⁷⁷⁾ 이들은 소정방군과 함께 군사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D-1에 의하면 고구려 수군과 당 수군(소정방, 임아상, 방효태군)의 첫 번째 격전지는 청천강과 대령강 하구에 소재한 위도였다.⁷⁸⁾ 앞서 언급했듯이 고구려 수군은 위도에서 당 수군의 평양성 포위를 저지하고자, 안주성 일대로 유인하거나 평양성 진입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⁷⁹⁾ 그러나 당 수군은 위도에서 승리한 후 안주성 일대로 진군

74) 『册府元龜』 卷373 將帥部34 忠4. 龐孝泰, 爲左驍衛將軍. 高宗遣將征高麗, 孝泰爲沃沮道總管. 時孝泰率令南水戰之士, 軍於蛇水之上

75) 『讀史方輿紀要』 卷38, 山東9, 外國附考. “蛇水在平壤西境, 唐龍朔初, 龐孝恭等擊高麗, 以嶺南兵壁於蛇水.”

76) 「作欽墓誌」, “龍朔元年, 涘江道敬奉天規, 承威問罪, 君沉戈畫鷁, 瞻獨鷺於星樓, 水劍浮龍競先 鳴於月峽.”

77) 『册府元龜』 卷373 將帥部34 忠4. 龐孝泰, 爲左驍衛將軍. 高宗遣將征高麗, 孝泰爲沃沮道總管. 時孝泰率令南水戰之士, 軍於蛇水之上.

78)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上 龍朔 2년 3월, “蘇定方破高麗于葦島, 又進攻平壤城, 不克而還.” 『舊唐書』 고종 본기는 소정방의 위도 전투 승전과 평양성 공격과 귀환을 모두 3월에 일괄적으로 기재하였다.(장창은, 앞의 논문(2016): 90) 위도 전투는 패강 전투보다 이전이며, 3월은 소정방이 귀환한 시점일 뿐이다(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1 각주 57).

79) 물론 고구려의 유인이나 지연 전술이 아닌 서해 연안항로를 따라 평양을 직격하는 당 수군이 사전에 배후의 위협요소를 확인하는 위력정찰 과정에서 위도에 배치된 고구려 수군을 공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 않았다. 당 수군이 위도를 점거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연안을 따라 곧장 남진하여 패강 하구에 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 위도 전투(김정호, 『大東輿地圖』, 1861.)



이후 고구려 수군은 패강에서(於溟江) 당 수군과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패배하여 상륙을 저지하지 못하고, 마읍산을 빼앗겼다.⁸⁰⁾ 마읍산의 소재지는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대동강 북안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병력과 군수물자를 집적하기

80)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수월한 수륙 교통의 결절지가 되는 서학산 일대로 비정된다.⁸¹⁾

고구려군의 마음산 상실은 패강 이서의 통제권을 당 수군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⁸²⁾ 당 수군에게 점거된 마음산은 압록수 방면으로부터 조달될 보급의 기착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평양성으로 진격한 당 수군은 위도, 패강, 마음산 전투에서 연승하면서 압록수 방면으로부터 이어지는 해상 보급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평양성을 포위할 여건을 마련하였다.

당 수군은 마음산을 보급기착지로 확보한 이후 소정방군, 임아상군, 방효태군으로 나뉘어 각자의 진영을 구축한 것으로 여겨진다. 평양성을 포위하려면 서남쪽의 서산, 서북쪽의 봉화산, 동북쪽의 모란봉 혹은 청암리토성을 통제해야 한다.⁸³⁾ 소정방군은 훗날 김유신군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 평양성 서남쪽의 서산에 주둔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효태군의 주둔지인 사수는 D-5에 의하면 평양성 서북에 소재한 강으로 보통강으로 비정된다.⁸⁴⁾ 임아상군의 주둔지는 기록에 전해지지 않으나, 소정방군, 방효태군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평양성을 포위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평양성 동북방의 모란봉 주변으로 여겨진다.

81) 마음산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이상훈의 연구가 참고(이상훈, 앞의 논문(2017): 292-306).

82) 이상훈, 위의 논문(2017): 311-312.

83) 이상훈, 앞의 책(2021): 287-292.

84) 손영중,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2000, 147 ; 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5 각주 67 ; 특히 이상훈은 『讀史方輿紀要』의 '蛇水'가 평양에 서북쪽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여 종래의 蛇水=합장강설을 비판하고, 蛇水=보통강설을 보완하였다(이상훈, 앞의 책(2021): 279-282.). 蛇水の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사 동향은 이상훈의 저서 참조.

<그림 3> 당 수군의 평양성 포위



* 출처 : Google 지도 활용

당시 서해~대동강 연안로에는 황룡산성 뿐 만이 아니라 우산성, 동진성, 늑명산성, 보산성 등의 평양성 방어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⁸⁵⁾ 당시 평양성을 포위한 당군의 규모는 최소한 15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⁸⁶⁾ 또한 고구

85) 이러한 원인은 진대덕의 고구려 내정탐색은 물론 연안로의 방어성들이 병력 면에서 열세였던 점이 적극적인 요격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적의 진출을 가로막지 못한 것이다(李成制, 『龍岡 黃龍山城과 黃海~大同江沿岸路- 고구려 후기 王都 방어체제의 一例-』, 『高句麗渤海研究』 41(2011): 179~183.).

86) 662년 김유신이 평양성에 주둔한 당군에게 조달한 26,250석의 군량은 15만 명의 군대가 15일, 5만 명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다(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2012): 102). 이 군량은 소정방군 뿐만 아니라 입아성, 방효태군도 감안한 군량이었을 것이다. 662년 사수 전투에서 전몰한 방효태군의 규모도 수만 명에 달하였다(『冊府元龜』 卷373 將帥部34 忠4.).

려가 주력군을 요동전선에 파견했기 때문에 평양성이 쉽게 포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⁸⁷⁾

고구려는 당군의 공격로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군대를 배치하고, 외교적인 대비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분산되어서 당군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에 고전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요동전선은 당군의 주력부대가 약하다고 해도 요해지역을 장악한 당군으로 인해 쉽게 병력을 빼서 평양 전선에 투입하기 어려웠다.⁸⁸⁾ 결국 당 수군은 평양성 포위에 성공하였지만, 당군의 승세는 두 달이 채 가지 못하였다. 아래의 『삼국사기』 기사들을 살펴보자.

E-1. 대왕이 앞서 대감(大監) 문천(文泉)을 보내 소(정방)장군에게 서신을 전하였는데, 이때 돌아와 복명(復命)하고는 드디어 (소)정방의 말을 전하였다. “저는 (황제: 고종의) 명을 받고 1만 리나 되는 넓은 바다를 건너 적(고구려)을 토벌하고자 해안에 배를 댄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왕의 군사는 도착하지 않고 군량을 주고받는 길마저 이어지지 않아 그 위태로움이 심합니다. 왕께서는 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⁸⁹⁾

E-2 황제가 邢國公 蘇定方을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6군으로써 만 리 길을 달려가게 하였다. 고구려군을 溟江에서 만나 그것을 격파하였다. 마침내 평양을 포위하였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굳게 지켰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 군사와 말이 죽고 부상을 당한 것이 많았으며 식량을 조달하는 길도 끊겼다.⁹⁰⁾

E-1은 신라가 용산성을 함락한 9월 27일 이후 소정방의 사자가 문무왕에게 전황을 전하는 기사이다. 신라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

87) 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1 ; 김병곤, 앞의 논문(2013): 53-54 ; 장창은 앞의 논문(2016): 88.

88) 鄭煥朱, 앞의 논문(2013): 255

89) 『三國史記』 卷42, 列傳2 金庾信 中.

90)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仁問.

은 7월 17일에 출병한 신라의 고구려 공격군⁹¹⁾이 9월이 다가도록 백제 부흥군과의 전투로 인해 오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⁹²⁾ 소정방의 사자는 소정방군이 평양 해안에 배를 댈지 한 달이 지난 시점 즉, 9월경부터 보급로가 끊어진 정황도 함께 전하고 있다. E-2에서도 평양성 내 고구려군의 수비로 인해 소정방군의 사상자가 많았고 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는 보급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은 글필하력군이 9월 말경 압록수에서 남생군에게 고전하던 시기와도 맞물린다. 이처럼 남생은 당군으로부터 압록수 일대를 사수하여 당군의 보급이 압록수로부터 평양으로 조달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정방은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고자, 단독으로 문무왕에게 군량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임아상, 방효태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던 당군의 고전 원인은 첫째, 평양성 수비의 견고함과 포위망을 뚫으려는 고구려군의 반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압록수 방면에서 남생이 지휘하는 수만 명의 고구려군이 글필하력군을 상대로 9월 말까지 압록수 일대를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평양 방면 당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있던 상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91)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원년 7월. 당시 신라의 고구려 공격군 규모는 군 편제상 약 5만 여명에 달하는 대군으로 추산된다(이상훈, “백제부흥군의 웅산성 주둔과 신라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57호(2015): 129).

92) 실제로는 고구려 공격에 나서고 싶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신라는 백제지역이 완전히 진압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이다(이상훈, 위의 논문(2015): 137-138). 당시 신라에게 급한 것은 고구려 공격이 아니라 백제고지를 차지하는 것이었다(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1).

3. 철록·거란의 참전과 일부 당군의 철군

글필하력군은 수만 명의 남생군을 격파하고 철산진까지 추격하여 평양 방면까지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나, 본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이 떨어져 철군하였다. 당시 글필하력군은 해상보급로를 확보하고, 평양에 주둔한 당 수군과도 조기에 합류할 수 있었음에도 철군하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이다. 이를 파악하기에 앞서 요동 방면으로 진격한 아사나총, 소사업의 행적부터 살펴보자.

고종은 10월 5일에 사냥을 나갔다가 10월 11일에 궁궐에 도착한 직후에 철록 공격 조서를 발표한 것⁹³⁾으로 보아 사냥 도중에 철록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보고를 접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철록이 군사를 일으킨 시점은 이르면 9월 말경으로 볼 수 있다. 당은 주력군 대부분이 고구려 전선에 있는 상황에서 철록이 기습적으로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당의 철록 공격군 편성에 고구려를 공격 중이던 아사나총과 소사업이 포함되었는데,⁹⁴⁾ 고종은 이들을 차출하여 철록 전선에 투입하였다.

이때 소사업이 이끄는 부여도행군 전체가 선악도행군으로 변경이 되어 철록 전선에 차출된 것으로 파악된다.⁹⁵⁾ 아사나총은 행군명의 변경 없이 장잠도행군대총관으로서 철록 전선으로 차출되었다. 이는 당이 철록 전선을 고구려 공격의 연장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93) 『資治通鑑』 卷200 唐紀16 高宗 龍朔元年 10月.

94) 『新唐書』 卷3 高宗 龍朔 원년 10월 ; 『資治通鑑』 卷200 唐紀16 高宗 龍朔元年 10月.

95) 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7-188.

당시 당의 문서 조달 속도는 평균 하루 평균 100리를 간다고 하며, 주요 간선도로를 낀 주요도시의 경우 최대 하루에 최대 500리를 간다고 한다.⁹⁶⁾ 낙양에서 요동 일대까지는 약 4,100리이므로 아사나충, 소사업군은 10월 말경 고종의 조서를 받고, 철록 방면으로 진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필하력군의 철군도 철록이 당을 공격한 것과 관련이 있다.⁹⁷⁾ 그렇다면 글필하력의 철군 시점은 언제일까? 『구당서』 글필하력전과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는 글필하력군의 압록수 도하 실패부터 철군까지 모두 9월 말에 연이어 소급하여 기술하였으나, 이 모든 전황이 9월 말에 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남생군과 글필하력군의 대치 기간, 압록수의 결빙, 전투가 벌어진 시간, 추격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종이 10월 11일 이후에 철록 공격군 편성 조서를 발표했으므로 글필하력의 철군 조서도 10월 11일 이후여야 한다. 낙양에서 등주까지의 거리는 2,140리이다.⁹⁸⁾ 그렇다면 글필하력이 조서를 받고 철군한 시점은 대략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글필하력군은 9월 말 압록수 이북 상륙부터 10월 말 혹은 11월 초 철군 조서를 받기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고구려에 주둔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확인된 글필하력군의 군사 활동은 압록수 이북 상륙, 남생군과의 대치, 남생군 격파, 철산진까지 추격으로 주둔한 기간에 비해 군사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왜냐하면 글필하력의 압록수 결빙부터 철산진까지의 진격은 속전속결에 의한 기동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96) 中村裕一, “赦書日行五百里”, 『武庫川女子大學校學部 史學研究室報告』7호(1988)

97) 『舊唐書』 卷109, 列傳59 契苾何力. ; 『新唐書』 卷110, 列傳35 諸夷蕃將 契苾何力.

98) 劉希爲, 『隋唐交通』, 新文豐出版公司, 1992, 69.

이 기간 동안 글필하력군의 평양성 진격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인데,⁹⁹⁾ 철륵이 군사를 일으켰다고 해서 평양성 진격을 포기하고 철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의 입장에서 645년부터 공들인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함락이 철륵을 격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략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¹⁰⁰⁾ 기록에는 전하지 않지만, 글필하력군도 예상치 못한 고구려군의 반격에¹⁰¹⁾ 의해 평양성까지 진격하지 못하고 패퇴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었으나, 고종의 조서를 받고 철군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¹⁰²⁾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철륵을 설득하여 당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고구려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서북방의 정세변화가 의도된 상황인지 여부는 기록에 전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

99)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렵지만, 고려-거란 전쟁 당시 거란군의 진군 일정과 병자호란 당시 청 우익군의 진군 일정이 참고 된다. 거란은 11월 16일에 흥화진을 공격하고 11월 24일에 통주를 공격하고, 12월 6일 광주를 함락, 12월 8일에 청수강에 이르고, 12월 9일에 서경에 이르렀다(『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원년 11월 辛卯己亥;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원년 12월 庚戌壬子癸丑). 청 우익군의 진군 속도는 더욱 빨랐다. 12월 10일 압록강을 도하하고, 11일부터 14일에 이르기까지 鐵山→郭山→定州→嘉山등의 경로로 이동하고, 15일에 안주에 주둔하였다. 그리고 18일과 19일에는 각각 肅川과 巡安을 지났고 20일 평양에 도착했다(장정수, 「병자호란시 조선 勤王軍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韓國史研究』 173(2016): 168~170) 거란군은 의주로부터 불과 21일만에 서경까지 이르렀고, 청 우익군은 압록강 도하 직후 11일만에 평양에 이르렀다. 이들의 진군 속도는 9월 말경 압록수를 도하한 글필하력군이 한 달 여 기간 동안 불과 철산진까지 진군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신속하게 평양까지 이르렀음은 분명하다.

100) 글필하력이 철륵과의 전쟁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일부 군대의 철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구려 공격에 전력을 다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김용만, 앞의 논문(2004), 195).

101) 648년 고구려는 오골성, 안시성(안시성)의 군사 3만 명으로 압록수 이북의 박작성을 공격하던 설만철군에게 반격을 전개한 바 있다(『舊唐書』 卷69 列傳19 薛萬徹).

102) 김용만, 앞의 논문(2004), 195.

다.¹⁰³⁾ 다만, 정황상 철릭이 당에 저항하도록 연계소문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도 추론해 볼 수 있다.¹⁰⁴⁾

앞서 아사나총군의 행군명을 통해 당이 철릭 전선을 고구려와의 전쟁의 연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철릭의 반란이 고구려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구려가 철릭에 사신을 보내려면 거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고구려의 거란 포섭과 관련하여 아사나총군의 행보가 주목된다.

A-1에 의하면 아사나총은 철릭 방면으로 철군을 하는 도중에 거란의 공격을 받았다. A-2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거란이 고구려와 결탁하였다고 한다. 거란이 고구려와 결탁하여 철릭 방면으로 철군하는 아사나총군을 공격했다는 것은 고구려의 거란 포섭이 성공하였음을 알려준다.

거란이 660년 이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당의 대외공격에 동원된 흔적이 없다는 사실¹⁰⁵⁾도 거란이 고구려와 결탁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¹⁰⁶⁾ 비록 거란은 660년에 당의 지나친 병력 징발로 인해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되었으나,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고구려와 결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⁷⁾ 이처럼 요동 방면을 공격하던 아사나총군과 소사업군과 압록수 방면을 공격하던 글필하력군이 철군하자, 요동 방면에는 정명진군만 남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F를 살펴보자.

F. 龍朔 원년(661), 遼東의 죄를 묻는데, 鏤方道總管 程名振이 (황제에게) 공을 行軍兵曹를 담당하게 할 것을 아뢰었다. (楊師善은) 軍謀와 戰策으로 많은

103) 徐榮教, 앞의 논문(2003): 224-225.

104) 김용만, 앞의 논문(2004): 193 ; 이제성, 『고구려와 유목민족의 관계사 연구』, 소나무, 2018, 92-93.

105) 김지영, 앞의 논문(2011): 85-96.

106) 徐榮教, 앞의 논문(2014): 330-333.

107) 李在成,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26(2011): 203-204.

곳에서 승리하였다. 大鵬이 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하늘을 드리웠던 날개가 떨어지고, 巨魚가 자유롭게, 물의 흐름을 쫓았는데, 햇별에 쩌어 비늘이 말랐다. 어찌하여 저 푸른 하늘은 玉樹를 꺾었는가. 춘추 58세에 그해 10월 26일에 軍에서 죽었다.¹⁰⁸⁾

상기한 F를 살펴보면 누방도행군병모 양사선의 사망에 대해 고구려군의 군사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대봉(大鵬)의 추락과 거어(巨魚)의 비늘이 햇별에 쩌인 불길한 정황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하였다. 이는 양사선의 사망이 예상롭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양사선의 사망 시기인 661년 10월 26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란과 철록의 참전으로 인해 일부 당군이 철군한 시기와 부합한다.

일부 당군의 철군으로 인해 군사적인 부담을 덜게 된 신성의 고구려군이 정명진군에게 반격을 가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F에서 기술한 양사선 사망 기록의 실상은 고구려군의 반격으로 누방도행군이 위기에 처하고, 양사선이 전사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명진군은 아사나충군과 소사업군이 고구려군의 반격으로부터 무사히 철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08) 「楊師善墓誌」, “龍朔元年, 問罪遼東, 鏤方道總管程名振奏公充行軍兵曹. 軍謀戰策, 多所決勝. 大鵬始竄, 垂天墜羽, 巨魚方縱, 窮波暴鱗. 如何彼蒼, 摧殘玉樹. 春秋五十有八, 以其年十月十六日, 卒於軍所.”

다.¹¹⁰⁾ 9월경 소정방의 사자가 고종에게 도착했을 무렵에는 보급기지 확보 임무를 맡았던 글필하력군의 철군이 결정된 시점이었을 것이다. 고종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라에게 평양 방면의 당군에게 보급하라는 칙지를 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¹¹¹⁾ 보급이 끊긴 채 평양성을 포위 중이던 당군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12월경에도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었다.

평양성의 고구려군은 운차(雲車)·충붕(衝棚)으로 공성전을 전개하던 당군에게 반격을 가하여 진지 두개를 빼앗고 남은 진지 두개도 빼앗고자 하였으나, 힘이 모자라 더 이상의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¹¹²⁾ 이때 고구려군으로부터 진지를 빼앗긴 당군이 소정방군, 임아상군, 방효태군 중 어느 행군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¹¹³⁾ 다만, 고구려가 왜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군의 반격이 평양성 포위를 뚫는 데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당군은 신라의 보급¹¹⁴⁾이 도착할 때까지 한파라는 악재 속에서 고구려군의 반격을 방어해야 하는 최

110) 661년 7월 신라의 출병에 대해 당군에 대한 보급부대로 파악한 견해가 있지만(徐榮教, 앞의 논문(2014a): 16), 이 당시 고종이 문무왕에게 보급 임무를 부여했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고종이 신라에게 공식적으로 보급을 요청한 것은 661년 10월이며, 당은 글필하력을 통한 자체적인 보급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라에게 보급 임무를 맡길 필요가 없었다. 신라의 7월 출병은 군사적인 지원이 목적이었으나, 10월 칙지로 인해 보급 임무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장창은, 위의 논문(2016): 103).

111) 소정방은 '勅旨'라는 고종의 권위를 통해 신라에게 보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112)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7년 12월.

113) 당시 당군은 고구려군의 공격에 많은 병력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마저 겹치면서 사기도 저하되었다(鄭媛朱, 앞의 논문(2013): 256).

114) 신라본기에는 662년 1월에 문무왕이 김유신에게 군량을 갖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나(『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2년), 김유신전에는 661년 12월 10일에 김유신이 고구려 경내에 진입하였다고 한다(『三國史記』 卷42, 列傳2 金庾信 中). 이를 절충하자면 661년 12월 10일은 문무왕이 최초 명령을 내린 시점이고, 662년 1월은 출병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5. 맺음말

661년 당은 35만 명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요동·압록수·평양 세 방향으로 공격하였다. 당군의 전략은 1. 아사나총·정명진·소사업군이 육로를 통해 요동 방향으로 진군, 2. 소정방·임아상·방효태군이 해로를 통해 평양 방향으로 진군, 3. 글필하력이 해로를 통해 요동과 평양의 중간지대인 압록수 이북에 상륙하여 보급기지를 확보, 4. 요동과 평양의 고구려군이 서로 연계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고구려의 방어 전략은 1. 요동방어망과 평양성에서 수성전을 전개, 2. 압록수에서 당군의 보급로를 차단, 3. 거란 등의 서북방에 소재한 유목세력들과 연계하여 당을 압박, 4. 당군이 군량 부족과 추위로 인해 지쳤을 때를 기다리다가 공세로 전환, 5. 퇴각하는 당군을 추격하여 섬멸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요동 방면으로는 정명진군 등이 신성 일대, 설인귀군 등이 요동성 일대, 소사업군과 아사나총군 등이 부여성 일대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요동 방면의 전투는 관련 사료가 전무한 탓에 정명진군 외에는 그 양상을 복원하기 어렵다. 「고을덕묘지」와 「양사선묘지」에 의하면 정명진군은 신성 일대에서 초전에 승리하였으나, 신성의 고구려군은 결과적으로 신성을 사수하였다.

압록수 방면으로는 글필하력군이 진군하여 압록수 이북에 보급기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압록수 이남에 미리 배치된 수만 명의 남생군에게 저지되었다. 이때 글필하력의 본진이 압록수 이북에 도착했을 시점에 압록수가 결빙되자, 글필하력군은 압록수를 도하하여 남생군을 격파하고 철산진까지 추격하였다.

평양 방면으로는 소정방군, 임아상군, 방효태군이 중심이 된 당군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평양 방면의 당군은 보급을 맡았던 글필하력군이 남생군에게 저지되고 있는 사이 보급이 끊겨서 고구려군의 반격에 고전하게 되었다. 소정방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자, 신라에 보급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초원의 유목세력인 철륵과 고구려와 연계된 거란이 참전하면서 당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요동 방면을 공격하던 아사나총소사업군과 압록수 방면을 공격하던 글필하력군이 철륵 거란 전선으로 철군하면서 당군의 전황은 더욱 불리해졌다. 요동 방면의 고구려군은 공세로 전환하여 요동 전선에 잔류한 정명진군을 공격하였다. 평양 방면에서도 고구려군의 반격은 더욱 거세져 당의 진지 2개를 빼앗고 왜에 사신을 보내는 등 당군의 포위망을 뚫는데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당군은 한파 속에서 고구려군의 반격을 방어하며, 신라의 보급을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輿地圖』, 『集神州三寶感通錄』,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 『李衛公問對』, 『日本書紀』, 『藤氏家傳』, 『讀史方輿紀要』, 『奉天通志』, 「泉男生墓誌」, 「契苾嵩墓誌」, 「高乙德墓誌」, 「斛斯正則墓誌」, 「南郭生墓誌」, 「婁敬墓誌」, 「阿史那忠碑」, 「阿史那忠墓誌」, 「楊師善墓誌」, 「仵欽墓誌」, 「張素墓誌」, 『東亞日報』

2. 연구서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http://uci.or.kr/G901:A-0006089371>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http://www.uci.or.kr/G701:B-00060576971>

_____,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http://uci.or.kr/G701:C-00073917052>

劉希爲, 『隋唐交通』, 新文豐出版公司, 1992.

손영중, 『고구려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2000.

<http://uci.or.kr/G901:A-0006128535>

이상훈, 『신라의 통일전쟁』, 민속원, 2021.

이재성, 『고구려와 유목민족의 관계사 연구』, 소나무, 2018.

田中俊明·東潮,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1994,

<http://uci.or.kr/G901:A-0008401389>

池内宏,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史研究』
上世第二冊, 吉川弘文館, 1960.

3. 논문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2021)

<http://doi.org/10.22827/seoul.2021..109.002>

김병근, 「661~662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책의 전략과 한계」, 『韓國史學報』 50(2013)

<http://uci.or.kr//G704-000690.2013..50.002>

김용만, 「2次 高句麗-唐 戰爭(661-662)의 進行 過程과 意義」, 『민족문화』 27(2004)

<http://uci.or.kr//I410-ECN-0101-2013-829-001179586>

_____, 「고구려 후기 고구려, 수 · 당 북방제국의 대립관계」, 『高句麗研究』 29(2007)

<http://uci.or.kr//G704-001250.2007.29..008>

김지영, 「7세기 고구려와 북방 제민족의 관계 변화」, 『만주연구』 8(2008)

<http://uci.or.kr//I410-ECN-0102-2010-951-001029926>

_____, 「7세기 중반 거란의 동향 변화와 고구려-660년 거란의 이반을 기점으로」, 『만주연구』 12(2011)

<https://doi.org/10.22888/mcsa..12.201112.75>

中村裕一, 「赦書日行五百里」, 『武庫川女子大學校學部 史學研究室報告』 7(1988)

- 閔德植, 「唐柴將軍精舍草堂碑에 대한 檢討」, 『百濟文化』 31(2002)
- 徐家國·孫力,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7-2(1987)
- 徐榮教, 「고구려의 대당전쟁(大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安市城 전투와 薛延陀」, 『軍史』 49(2003)
<http://uci.or.kr//G704-001528.2003..49.005>
- _____, 「연개소문의 對鮮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 - 『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8·12월조 『考異』의 「實錄」자료와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 44(2014)
<http://uci.or.kr//G704-002002.2014..44.004>
- _____, 「倭의 百濟 援助와 蘇定方の 平壤城 撤軍」, 『大丘史學』 117(2014)
<http://uci.or.kr//I410-ECN-0102-2015-900-002245718>
- _____, 「唐高宗 百濟撤軍 勅書의 背景」, 『東國史學』 57(2015)
- _____, 「唐의 고구려 內戰介入과 新城·大行城 점령」, 『中國史研究』 131(2021)
- 徐日範·尹根一, 「北韓 內의 高句麗 城 分布와 研究現況」, 『高句麗研究』 8(1999)
- 신범규, 「8세기 전반 발해의 해양 교통로와 제해권 범위」, 『한국고대사탐구』 38(2021)
- 安周燮, 『高麗-契丹 戰爭史 研究』, 明知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1)
<http://uci.or.kr//G701:B-00092111686>
- 양시은,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제」, 『고고학』 12-3(2013)

- 우석훈, 「遼河 유역의 高句麗 千里長城」, 『軍史』 92(2014)
<https://doi.org/10.29212/mh.2014..92.103>
- 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 지배세력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 『民族文化』 37(2011)
<https://doi.org/10.15752/itkc.37.37.201106.149>
- 윤용구,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裴矩의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5(2005)
<http://uci.or.kr//G901:A-0002068436>
- 이문기, 「7세기 高句麗의 軍事編制와 運用」, 『고구려발해연구』 27(2007)
<http://uci.or.kr//G704-001250.2007.27..004>
- _____,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한국고대사연구』 50(2008)
<http://uci.or.kr//G704-000848.2008..50.008>
- 李玟洙,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38(2021)
- 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2012)
<https://doi.org/10.23011/jnds.2012.55.3.005>
- _____, 「661년 북한산성 전투와 김유신의 대응」, 『국학연구』 31(2014)
<https://doi.org/10.36093/ks.2016..31.007>
- _____, 「백제부흥군의 웅산성 주둔과 신라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 57(2015)
<https://doi.org/10.17999/SOHE.2015.57.04>
- _____,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음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군사』 104(2017)
<https://doi.org/10.29212/mh.2017..104.291>

- 이상훈, 「고구려 영류산의 위치와 나당연합군의 진군로」, 『한국고대사탐구』 34(2020)
<https://doi.org/10.35160/sjekh.2020.04.34.181>
- 李成制, 「龍岡 黃龍山城과 黃海~大同江沿岸路- 고구려 후기 王都 방어체제의 一例-」, 『高句麗渤海研究』 41(2011)
<http://uci.or.kr//G704-001250.2011.41..004>
- _____, 「高句麗와 투르크계 北方勢力的 關係-이해의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 『高句麗渤海研究』 52(2015)
<http://uci.or.kr//G704-001250.2015.52..002>
- _____,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분석-」, 『중국고중세사 연구』 38(2015)
<https://doi.org/10.15840/amch.2015..38.005>
- _____, 「褥薩의 大城·王都 5部 駐在와 그 職任」, 『한국고대사 연구』 92(2018)
<https://doi.org/10.37331/JKAH.2018.12.92.165>
- _____,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 - 고구려 사절이 아프리카시압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5(2019)
<https://doi.org/10.23037/dyn.2019..65.006>
- 이영재, 「660년대 고구려의 대남방 전략」, 『大丘史學』 130(2018)
<https://doi.org/10.17751/DHR.130.27>
- 이정빈, 「「천남생 묘지」에 보이는 將軍과 7세기 고구려의 군사 운용」, 『韓國古代史探究』 22(2016)
<https://doi.org/10.35160/sjekh.2016.04.22.77>

- 李在成,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26(2011)
<http://uci.or.kr/I410-ECN-0101-2013-912-000751519>
- 장정수, 「병자호란시 조선 勤王軍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韓國史研究』 173(2016)
<http://uci.or.kr/G704-000361.2016..173.002>
-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2016)
<http://uci.or.kr/G704-002006.2016..38.006>
- 鄭媛朱, 『高句麗滅亡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博士學位論文 (2013)
- _____, 「男生의 失脚 배경과 그의 行步」, 『한국고대사연구』 75(2014)
<http://uci.or.kr/G704-000848.2014..75.008>
- 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2012)
<http://uci.or.kr/G704-002002.2012..38.007>
- 許仁旭, 『高麗·契丹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 연구』, 高麗大學校博士學位論文(2012)
<http://uci.or.kr/G901:A-0005714854>
- 허인욱, 「유목사회의 특성과 고려-거란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60(2020)
<https://doi.org/10.35863/JKMH.60.2>

(Abstract)

The War Situation of the Goguryeo-Táng War in 661

Lee, Min-su

This paper analyzes the battle situation of the Goguryeo-Táng War in 661. In 661, 350,000 Táng troops attacked Liaodong, Yalu River, and Pyongyang. Goguryeo's defense strategies were to block the supply routes of the Yalu River while guarding the castle with a Liaodong defense net, press the party in connection with nomadic forces in the northwest, wait for the party's lack of food, and turning into an offensive phase.

On the Liaodong front, Chéngmíngzhèn's army(Nubang attacking army) fought against Go Eul-deok's army outside and captured Go Eul-deok, but Goguryeo's army succeeded in protecting the divinity and stopping the party's advance. On the Yalu River front, Qì bì hé lì's army(Liáodōng attacking army) tried to secure a supply base north of the Yalu River, but was previously blocked by tens of thousands of Namsaeng's army troops deployed south of the Yalu River. However, when the Yalu River suddenly froze, Qì bì hé lì's army crossed the Yalu River, defeated Namsaeng's army, and chased Cheolsan. On the Pyongyang front, party naval forces led by Sūdingfāng(Pyongyang attacking army), Rèn yǎ xiāng(Paegang attacking army), and Páng xiàotài(Okjeo attacking army) defeated Goguryeo naval forces at the mouth of the Pae River and succeeded in siege Pyongyang. However, while Sūdingfāng's army in charge of Pyongyang supplies were blocked by Namsaeng's army, the supplies were cut off and failed to maintain the momentum and struggled with Goguryeo's resistance. In addition, the Silla army, which was advancing to Goguryeo, was unable to advance to Goguryeo due to the Baekje Revival Army. Sūdingfāng asked Silla to supply it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In this situation, Qidān, which was linked to the nomadic forces of the meadow, Tōles and Goguryeo, rebelled against the party. As a result, the Ā shǐ nà zhōng and Xiāosiyè forces that attacked the fluctuation and the Qì bì hé lì forces that attacked the Yalu River retreated toward Tōles, making the party more disadvantageous. When the Táng army began to withdraw to the Tōles front, the Liaodong Goguryeo army switched to an offensive and launched a counterattack, and in the process, Chéngmíngzhèn, who remained in Liaodong, lost. In Pyongyang, Goguryeo's counterattack intensified, and it achieved certain results in stealing two military bases of the party and sending envoys to Japan to break through the party's siege. On the other hand, the party faced the worst situation of having to wait for the supply of Silla while defending Goguryeo's counterattack in cold weather.

Keywords : Goguryeo, Táng, Tōles, Qidān, Silla, Liaodong, Yalu River, Pyongyang